

# 봄철 산불예방 총력 당부

### 황인홍 무주군수, 월례조회 통해 영농준비·코로나 의료대응 철저 등 강조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2일 전통생활문화체험관 강당에서 열린 4월 월례조회를 통해 △산불예방과 △영농준비 철저, △코로나 관련 의료대응 및 △생활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공공 선정을 비롯해 국·도비 확보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2일 전통생활문화체험관 강당에서 열린 4월 월례조회를 통해 △산불예방과 △영농준비 철저, △코로나 관련 의료대응 및 △생활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일 설천면 소천리(산천면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언급한 황 군수는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주말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약 5ha 규모의 산림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산불이 대부분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태우기 등 실화에서 발생이 된다는 것. 한 번 발생을 하면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과 주민들의 손에가 얽힌다는 것을 경험한 만큼 산불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주민들을 위해 조금 더 힘을내자"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국제경제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생활물가 상승 위험을 언급 민생을 헤아려야 한다고 전하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무주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선정과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 7기 4년의 시간을 반추하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황 군수는 "공약 이행률 92%를 달성하고 5천억 예산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무주의 오늘은 모두 여러분과 함께 쌓아올린 탑이라면서 "남은 기간 김희욱 부군수를 중심으로 여러분 각자가 맡은 바 위치에서 잘 마무리해준다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산림복지과 김현정 주무관과 보건의료원 권은경 주무관, 설천면 김하운 주무관 민원봉사과 진순희 주무관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취약계층 복지 강화 행복도시 건설”

###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 복지공약 발표



장수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다문화)이 양 부위원장은 4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사는 장수군을 지향하는 이번 복지공약의 내용은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주택(청년같이) 추진 ▲청년 활동 거점공간 확대(청년 활동가 양성)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일자리 확대와 처우개선(임

대주택 제공) ▲장애인 유형별 세분화 지원 정책 추진(맨투맨 하우스) ▲다문화가정 배우자 자녀 역량강화 지원 사업 실시 ▲공공·민간 연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행정과 유관기관(다문화, 장애인 기관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체 구축 ▲여성 행복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이다.

양 부위원장은 복지 공약들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행정과 유관기관 간의 실무 협의체를 구축하여 실무적으로 민통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기자



서정호 전 청와대행정관이 4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무주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 “저와 함께 무주의 미래 열어갑시다”

### 서정호 전 청와대 행정관, 무주군수 출마 선언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누구나 동경하고 살고 싶은 행복한 무주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오는 6.1 지방선거에 무주군수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서정호(더불어민주당) 전 청와대행정관이 4일 무주군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의 첫 일문이다.

서정호 무주군수 예비후보는 “행정은 시대에 맞고, 시대에 필요한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무주, 행복한 무주를 위해 이 시대의 책임자가 곧 서정호”라며 본인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서정호 예비후보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거쳐 지역주민 우선의 위민행정으로 산업과 도시가 변화하는 무주, 행복한 무주를 만들겠다”며 큰 변화, 큰 인물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무주 6개 읍면을 하나로 묶는 ‘하느로(路) 관광프로젝트’를 시

행해 세계 최고의 ‘사계절 힐링관광전국’으로 만들겠다고, 무주군에 남북간 친환경 철도노선을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한 인맥으로 대전~무주~함양~진주로 신설하여 기차 타고 서울가고 기차 타고 무주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호언했다. 이어 “무주군 소재 공원과 하천을 친환경으로 정비하는 등 도시를 새롭게 다듬어 일등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며 “청년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젊은 도시를 이뤄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는 6월 무주약국 2층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 서정호 무주군수 예비후보는 무주군청을 시작으로 전주시와 전북도청을 거쳐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했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 무주군, 과수 저온피해 예방 적극 대응

### 방상편·관수시설 활용 미온수 공급 시범 사업 등 추진

무주군이 봄철 이상 기상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봄철 개화기 서리피해 예방을 위해 사과, 복숭아 등 주요 작목재배 농가에 대한 방상편 시설을 지원하고 관수시설을 활용한 미온수 공급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방상편은 팬이 회전하며 온도를 감지·자동으로 가동되는 시설로, 6~8m

높이에 설치함으로써 정제돼 있는 찬 공기를 순환시켜 저온경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비가 온 이후에는 나무의 습도를 줄여 병해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1억 천만 원(도비 50%, 군비 50%)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천 옆, 폭간지, 분지 등 서리피해 상습지역 11곳에 방상편 20기를 설치한다.

또 관수시설 활용 미온수 공급 시설은 서리피해 상습지역에 열원을 적용해 기온하강 시 미온수를 살포하는 것으로 1억 원(국비 50, 군비 50%)을 들여 8곳에 설치,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과수 저온피해 예방 지원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43개 단체 684농가 500ha 규모에 군비 6천만 원을 포함한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저온피해 예방제는 발아기부터 개화기 전까지 살포하면 식물 체내 온도를 상승시켜 병해를 방지하고 수정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대표관광지 모바일 스탬프투어 실시

진안군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지정된 미안산도립공원과 주요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9월 까지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 스탬프투어 장소는 미안산 도립공원 내 금당사, 부부사비, 미안산 석탑군

및 탑사, 은수사 신약초타운, 폐지문화체험관, 명인명품관, 기우박물관, 진안역사박물관, 미로공원과 관내 명소인 꽃잔디동산, 수선루, 부귀메타세콰이이길, 용담호 조각공원 등 30여 개 소이다.

참여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 앱 설치 및 로그인 후 진안군 스탬프투어를 선택한 후 가까운 장소의 스탬프존으로 접근해 스탬프를 인증하면 된다. 관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5개, 10개, 15개 이상 미션 달성 시 기념품을 차등 증정하며 상품은 우선 발송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 지역 소식 통

### 장수군,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6개 지구 지정

장수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계남면 화양·화음·가곡·장안지구와 계북면 어전·원촌지구가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25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6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해당사업지구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특장사항을 바로잡는 장기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누구나 자신의 땅에 대한 경계확인이 가능해져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반부패 청렴 노력 인정받아 청렴인증기관으로 선정

진안군은 4월 공직사회의 반부패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에 앞장선 노력을 인정받아 청렴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 기관인 시민참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주관으로 정춘성 진안군수, 원덕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해 내빈과 직원들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인증기관 인증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그동안 진안군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힘써왔다. 특히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한 결과 공직자 스스로 청렴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으로 내부적 청렴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었다.

정춘성 군수는 "오늘 주신 이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겨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